



설교 페스티벌에 참가한 신학생들과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했다.



토랜스제일장로교회가 캠페인을 초청해 빈곤국 어린이들과 결연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4일 동안 252명 어린이 결연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캠페션 행사

토랜스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에서 지난 27일(금)부터 30일(월)까지 전세계 빈곤국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캠페션 행사를 열었다. 빈곤국 어린이들의 삶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캠페션 체험 차량이 제일장로교회를 방문했으며 4일 동안 여러 다민족 4,519명이 이 행사에 참여했고 252명의 빈곤국 어린이들이 1대1로 결연됐다.

특히 29일 주일에는 캠페션 홍보대사인 배우 신애라 집사의 간증과 뮤지컬 배우이자 연기자인 리키 김 씨의 아내인 류승주 자매의 특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캠페션을 통해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들이 진행됐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캠페션 미주대표 문영명 목사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을 따라 사랑과 나눔의 삶이 되기를 권면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제일장로교회 고창현 목사는 “교회가 점점 회복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계획했다”고 말하며 “이번 결연을 통해 단순히 매달 결연한 아이들에게 후원을 할 뿐만 아니라 결연한 나라별(우간다, 태국, 온두라스)로 기도 모임과 편지 쓰기 모임을 시작해서 2-3년 후에는 결연할 아이들을 방문할 비전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이민교회가 경청해야 할 종교개혁적 설교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해 설교 페스티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남가주 신학대학 연합 설교 페스티벌이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주관으로 지난 4일(토) 오전 9시 남가주동신교회(백정우 담임목사)에서 개최됐다.

설교 페스티벌은 건전한 설교 문화 정착과 교회의 본질 회복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번 설교 페스티벌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개혁자들의 전통과 정신을 기리고, 이 시대의 이민교회가 경청해야 할 개혁적 설교를 선포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금번 설교 페스티벌에는 미성대학교, 베데스다대학교, 클레어몬트 신학교, 에반젤리야대학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국제개혁신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풀러신학교, 월드미션대학교가 참여했다.

페스티벌에서는 구약의 본문 2개와 신약의 본문 2개 중 하나를 선택해 15분 동안 전달력과 열정, 정확한 본문 주해, 설교 구성(시간 엄

수), 종교개혁적 전통과 유산의 이민교회 현장의 적용성 등 4개의 항목에 각 25점 배점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심사됐다. 심사위원은 각 대학별 1명의 교수와 목회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자신의 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심사에서 제외됐다.

심사위원장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는 “설교는 최소 2천년에서 3천년 전에 기록된 성경 텍스트를 오늘의 살아있는 메시지로 전해야 한다”면서 “설교는 본문의 정확한 이해와 함께 이 시대에 왜 이 말씀이 전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시간 안에 청중의 다른 수준에 따라 효과적인 단어를 쓰면서 단순하고 집중적으로 설교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 목사는 “이번 페스티벌 설교자들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귀한 설교자들이 남가주에 있

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다”고 마무리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상: 박동진(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상금 \$2,000과 상장, 설교상: 권영란(그레이스미션대학교)-상금 \$1,500과 상장, 주해상: 박면호(월드미션대학교)-상금 \$1,500과 상장, 커뮤니케이션상: 김경식(국제개혁대학교)-상금 \$1,000과 상장.

한편, 설교 페스티벌에 앞서 진행된 예배는 한기형 목사의 인도로 박종술 목사의 찬양인도, 백은학 장로의 대표기도, 박희민 목사의 설교, 이호우 목사의 축사, 클레어몬트신학교 제프리 관 총장의 영상축사, 이성우 목사의 광고, 박성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순서는 최승목 목사의 사회로 설교 페스티벌, 3부 순서는 송정명 목사의 사회로 평가 및 시상식으로 진행됐다. 모든 순서는 민경엽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자선냄비 모금 위한 자선 음악회 열린다

터스틴구세군교회(한인 담당 이용우 사관)가 11월 11일(토) 오후 5시 자선음악회를 연다. 이 음악회의 수익금은 오는 11월 17일 타종과 함께 시작되는 구세군 자선냄비에 기부되어 자연재해 피해자, 쉼터의 홀리스, 인신매매 피해자 돕기, 푸트 팬트리 및 저소득층 유틸

리티 보조 사역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CTS 연합 합창단, CTS 어린이 합창단, 에버그린 합창단, 케노시스 챔버 합창단, 소프라노 쟈리, 바리톤 김동영, 첼로 박수정 등이 출연한다. 문의) 213-447-2793 (주소) 10200 Pioneer Rd. Tustin, CA 92782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스펙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 T.(562)916-5191
 (한인 매니저) |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ASE CERTIFIED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전기계통
 ■ Tune-Ups ■ 10K Service
 ■ Computer Diagnostic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 위치: GATEWAY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게이트웨이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 등록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11월 1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124 KEB@GS.EDU
 FOR MORE INFORMATION VISIT : WWW.G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개교 40주년 기념 후원 음악회가 열렸다.

은혜의 40주년, 선교적 신학교 사명 다할 것

미주장신 개교 40주년 기념 후원 음악회 개최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직영신학교로, 미주 지역에 세워진 한인신학교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이상명 총장)가 개교 40주년을 맞아 후원 음악회를 개최했다. 6일 저녁 7시 30분 남가주동신교회(백정우 목사) 본당에서 열린 음악회는 박성규 KPCA 총회장을 비롯해 김인식 전 이사장과 후원자들이 본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미주장신 콘서트 콰이어(지휘 조혜정 교수, 반주 차혜진) 팀의 수

준 높은 메인 공연과 함께 카이로스 심어즈, 가야금 이정화, 소프라노 최은원, 첼로 박수정이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들은 <주는 피난처> <주보다 더 날 사랑하는 이 없네> <그가(He is...)> <별> <지금까지 지내온 것> <The Battle of Jericho>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의 찬양, <Nella Funicula> <Funiculi-Funiculi> 등의 곡을 선보이며 청중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선사했다. 공연의 마지막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을 다 함께 합창해 음악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어 미주장신대 전 이사장인 김인식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상명 총장은 “미주장신대는 1977년 9월 1일 개교한 이래 미주 지역과 한인 디아스포라 교계와 사회의 든든한 신학교육 센터로 성장해 왔다”면서 “지난 40년간 본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교단, 교회와 목회자들과 동문들과 후원자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장은 “본교가 마지막 때 선교적 신학교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기도, 따뜻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CMF 정기 예배에서 사회를 보고 있는 대표 김철민 장로와 참석한 선교사들

“한 사람이 중요해”

CMF 선교원 11월 정기 예배

봄부터 가을이 오기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선교사들의 정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CMF 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에서는 지난 11월 4일(토) 오후 5시 CMF 강당에서 대표 김철민 장로의 사회로 예배를 드렸다. 김영호 선교사(예멘)가 대표로 기도하고 찬양을 부른 후에 가나안 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는 김인철 목사가 설교했다. 김 목사는 이사가야 1장 21절-23절을 본문으로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CMF는 축복 가운데 좋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CMF 주위에서는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있는 스태프들도 참 좋은 분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 이 민사회의 학교들을 보면 학부모의 경우는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

기를 원하고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이나 학교 근처의 분위기가 나빠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지역으로, 신앙의 도시로 만들 의무가 있다. 이러한 도시로 변화를 이룩해야 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임만리 선교사(C국), 김영호 선교사, 박종진 선교사(이집트), 손순미 선교사(CMF 무용팀)의 5분 간증을 듣고 박종진 선교사의 인도로 합심기도 후에 박종진 선교사의 축도로 11월 정기 예배 순서를 모두 마쳤다. 한편, CMF 선교원에서는 오는 11월 17일(금)-19일(주일)까지 제 36차 선교사 부부축제를 개최한다. 지난 해에 이어서 이번 축제도 샌페드로 해변에 있는 더블트리호텔에서 열린다. CMF 기사 제공

나눔과섬김의교회 창립 5주년 맞아 교회 이전



나눔과섬김의교회 창립 5주년 및 교회 이전 감사예배

나눔과섬김의교회가 창립 5주년과 교회 이전을 기념하는 감사예배를 11월 5일(주일) 오후 3시에 드렸다. 교회 성도들과 축하객들이 새 예배당을 가득 채운 가운데 엘리야 김 담임목사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를 소원하며 나눔과섬김의교회도 그런 건강한 교회 중 하나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전도지향적, 전도중심적 교회가 되

어야 한다”면서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념 감사예배는 이 교회 송인 협동목사의 인도로 시작돼 윤태환 협동목사가 기도하고 전재학 원로목사가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예루살렘 성가단(지휘 서문욱)이 축하 찬양을 하는 시간도 있었다. 한편, 엘리야 김 담임목사가 남가

주한인목사회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각각 수석부회장으로 섬긴 인연으로 이날 예배에는 두 단체의 리더십들이 대거 참석해 식순을 맡았다. 백지영 목사(교협 부회장)가 성경봉독, 심진구·주재임 목사(교협 부회장) 등이 특별기도를 인도하고 김재울 목사(교협 회장), 박효우·김영대 목사(교협 증경회장)가 축사했다. 또 코이노니아선교회의 박종희 목사의 축하 찬양 후에 김인철 목사(개척장로회 한미연합총회 증경총회장)가 격려사를 전하고 샘신 목사(목사회 수석부회장)가 헌금기도, 이태환 목사(남가주원로목사회 증경회장)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식탁 교제를 위해 남상국 목사(OC목사회 수석부회장)가 식사기도했다. 이 교회는 LA 한인타운 인근 3가와 램파트 블러버드가 교차하는 지점 276 S. Rampart Bl. Los Angeles, CA 90057로 이전했다. 문의) 213-272-6031



총동문회 정기총회를 마친 후 기념 촬영

재미 총신 남가주 총동문회 총회

재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남가주 총동문회 정기총회가 지난 10월 30일 오전 11시 영생교회(김해성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에서는 표세흥 목사의

사회, 최순길 목사의 기도, 윤태근 회장의 설교 후 김해성 증경회장이 축도했다. 이어진 2부 총회에서는 수석부회장 표세흥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인준되었다.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솔로몬 대학교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세미나



총장 백지영 목사
Ester J. Baek Ph.D

(약력)
조선대학교(Chosun University) 졸업
순복음신학교(Full Gospel Seminary) 졸업
Bethany 신학대학 졸업
Trinity 신학대학원 졸업(신학석사) M.Div
Bethany 신학대학원 졸업(교육철학박사 Ph.D)
California International Seminary, D.D.
American International Seminary, D.D.
솔로몬대학교(Solomon University) 총장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전회장(SCK Women's Ministers Association Former President)
남가주한인목사회 제48대회장 역임(S.C.Korean Ministers Association 48th President)
글로벌 미주 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Global United States Revival Association President)
임마누엘 선교교회 담임(Immanuel Mission Church Pastor)



교수 서병길 목사
Rev. Seo, Byung Kil (Isaac)

(약력)
2006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Special Student)
2008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octorate Theological & Ministerial (GM,D,min)
2015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D, Miss (candidate)
2016 Central University
Professor Associate Dean
2017 Present Emmanuel University
Professor Lectures on old Testament & Hebrew
2017 Present Theological Seminary UniversityA
Professor Lectures on old Testament & Hebrew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정 사역 상담학은 솔로몬 대학교 총장 백지영 목사님께서 직접 강의하시고
히브리어, 헬라어 전문인 서병길 목사님께서 히브리어, 헬라어 특별 강의를 하십니다.
오셔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은혜 받고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

강의시작 : 11월 19일 주일 오후 2시(매주 주일예배 후 강의시작)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 이 강의를 들으면 솔로몬 대학의 학점으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모든 병(마약, 동성애 등)을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약으로 고통 받던 이가 치유되고 회복된 경험자의 간증 시간도 갖게 됩니다.

SOLOMON UNIVERSITY

Tel: (213) 381-7755, (323) 708-9191 Fax: (213) 380-77555
4055 Wilshire Blvd # 306~8, LA, CA 90010
www.solomonuniv.org E-mail: solomonuniversity@gmail.com



종교개혁이 한인 이민교회에 주는 의미를 성찰하는 포럼이 열렸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포럼 열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포럼이 11월 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주님의영광교회에서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주최로 열렸다. 이 포럼은 종교개혁의 유산이 남긴 의미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21세기 이민교회 현장에 주는 실제적 의미를 성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포럼에서는 종교개혁 500주

년과 관련해 디아스포라 이민교회의 현재적 진단(민종기 박사), 디아스포라 이민교회의 미래적 전망(정성욱 박사), 현대 교회의 위기 진단과 해결 모색(권연경 박사),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사회(이상명 박사)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발제 후에는 이승현 박사, 고태형 박사, 송인서 박사가 주제 발

표에 대해 논찬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포럼은 신승훈 목사의 개회사, 목사장로찬양단의 특송, 포럼 및 논찬, 진유철 목사의 마무리 기도로 진행됐다. 이번 기념 포럼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기사는 본지 온라인 신문 www.chdaily.com에서 볼 수 있다.



이춘준 목사가 슬리핑백 나눔을 위해 남가주 지역 성도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어려운 이웃에게 슬리핑백 선물해요

“우리 모두 감사의 계절, 우리 주위를 한 번 돌아봅시다.” 샌버나디노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사랑나눔선교회와 장대교회(이춘준 목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오는 11월 25일(토) 오전 9시 샌버나디노 공원에서 사랑의 슬

리핑백을 나눈다.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 노숙인들, 어린이들에게 슬리핑백 200개를 배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뜻있는 이들의 동참을 바라고 있다. 후원 문의) 951-966-9191



창립 감사예배에서 설교하는 이순환 담임목사

마르지 않는 샘같은 교회 될 것

지난 5일 한샘교회(이순환 담임목사)가 창립 감사예배를 드렸다. 8월 말부터 창립 준비 모임을 드린 한샘교회는 12명의 지체들이 함께 했다. 이순환 목사는 “광야같은 이민자들의 삶이 쉽고 안식을 얻으며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상과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세상에 흘려 넘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또 “비록 작은 교회이나 이월금액을 남기지 않고 세상과 이웃을 향해 섬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공급받는 교회가 되겠다”고 선포했다. 이 예배는 이순환 목사가 인도했

으며 윤능구 장로(서부장로교회)가 대표기도하고 이 목사가 창21:33-34, 요1:47-49을 본문으로 “나무를 심고 그 나무 아래에서”란 설교를 전했다. 김정일 집사와 이순환 목사의 특별찬양 후에 김병호 장로가 교회 창립까지의 경과보고를 전했다. 김 장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기적적으로 한샘교회의 임당을 허락하셨다”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했다. 이 교회는 주일 오전 11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예배 드린다. 주소) 1911 Wilshire Bl. Los Angeles, CA90057 전화) 213-505-3838

아픔과 상처 나누다 치유 받고 회복 체험

이민교회 목회자·선교사 자녀 위한 컨퍼런스 열린다



과거 열렸던 컨퍼런스 모습 ©목회자자모신문

이민교회 목회자 자녀(PK)와 선교사 자녀(MK)를 섬기는 'PMK Conference'가 “쉼, 회복”이란 주제 아래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기간인 22일부터 24일까지 사랑의빛선교교회(윤대혁 목사, 2801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7)에서 개최된다. 목회자자모신문(발행인 설동욱 목사)과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이사장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가 한국에서 28회 개최한 이민 컨퍼런스는 목회자 자녀의 자긍심을 찾게 하고 삶의 자신감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컨퍼런스로 유명하다. 그동안 이 행사에 참석했던 수많은 목회자 자녀들은 “다른 목회자 자녀들의 삶을 알게 되면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고 나 혼자 아닌 함께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무척 감사하

다.” “은혜로운 말씀, 찬양, 기도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었다”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한다. 이번 제29회는 특별히 미주를 방문해 이민 목회자 자녀와 선교사 자녀를 섬기고자 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다니엘 김 선교사(예수세대 운동 대표), 설동욱 목사(서울예정교회), 박태남 목사(벨렐교회), 김성현 목사(세계비전교회), 윤대혁 목사(LA사랑의빛선교회)가 강사로 나서게 된다. 참가비는 40달러이며 2박3일간의 숙식이 포함돼 있다. 설동욱 목사는 “목회자 자녀들은 참 많이도 외롭다. 그런데 이 행사에서 나와 똑같은, 아니 나보다 더 어려운 목회자 자녀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나누고 서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능력이 함께 하는 것”이라며 “와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562-217-9196 참가신청) www.pmkcon.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어떤 해를요? 16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달에 나눠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Happy Thanksgiving

추수감사절 예배 및 행사에 필요한 각종 디스플레이와 사인 지금 주문하세요!

www.caravancanopy.com

교회 휴대용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 캐노피는 18년의 대형 프린팅 전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플래그 **X-배너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현수막**

롤업배너 **미디어벽**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14600 Alondra Boulevar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714.367.3046 (한국어)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41〉

터키는 지금 변하고 있다 (2)

지난 주에 이어 쓴다. 아랍의 청년들이 터키로 몰려온다. 난민으로 오는 것이다. 이집트와 레바논, 요르단의 기독교 청년들이 같은 아랍어권의 시리아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는 것이다. 이사가 19장 23~25절의 그 말씀이 지금 그들로 인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그 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앗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어쩌면 우리는 세계인이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영어로 예배를 드릴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른다. 아니다. 아랍어가 그 한복판에 설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표어인 ‘백 투 예루살렘’을 외치며 지금 서진 운동의 주역이 되고 있다. 그들이 영어가 아닌 아랍어를 배우고 있다. 오직 복음 때문이다.

세계 교회의 기류가 변하고 있다. 지금 터키는 이를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강력한 복음의 나라가 되기 위해 일하고 있다. 지금 난민인 시리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터키는 계속하여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한 가지 꼭 말하고 싶다. 텔레비전이나 미디어에서 비취지는 난민 지역의 남루한 모습들, 그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사역을 확장시키려는 자들, 난민들에게 빵을 쥐어 주고 할 일 다 한 것처럼 만족해 하는 모습들... 그것

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다.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직 복음에 반응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에 목숨을 거는 이들이 탄생하고 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라.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진리인데 왜 말씀에 없는 ‘한 손에는 빵을’이라는 구절을 첨부했는가? 교회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사람들은 그 구절 하던 앓은뱅이가 먹을 것을 구했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그는 생명을 구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원했다.

지금 타국에서 가난하게 빈민으로 사는 저 난민들이 빵을 구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교회, 많은 단체들이 그 빵만을 준다. 물론 그리로 더 많은 난민들이 몰릴 것이다. 그러나 빵을 거절하는 난민들도 있다. 오직 복음을 취하는 이들이다. 그들은 참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었다. 그들은 빵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다. 복음을 취하는 자들이 시리아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될 것이다.

오직 복음을 따르는 미주의 청년들, 시리아 청년들, 이집트 청년들, 터키 청년들, 이란 청년들, 한국의 청년들, 멕시코 청년들이 지금 터키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

● 특별 기고

종교개혁 500주년 물려받을 유산은 무엇인가



심민수 교수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 해가 기울고 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 논제의 반박문을 내건 이후 역사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었다. 저항의 단초는 종교개혁을 넘어 혁명적 사태로 이어졌다. 한 주먹 눈덩이가 기울어진 역사의 산비탈을 굴러 내리며 엄청난 산사태로 이어진 격이다.

주류 종교개혁은 중세 교회의 역사를 접고 초기 기독교회의 끊어진 역사를 잇는, 상실됐던 교회 근원으로의 복귀인 듯했다. 유럽을 지배하던 보편적 종교권력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교회 본연의 생명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았다. 세속적 속성과는 무관한 본래적 교회의 진정성이 다시 발아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여는 듯이 보였다.

그런 전망과는 별개로 종교개혁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무관할 수 없었다. 중세는 하나의 보편적 종교권력이 세속권력까지 지배하던 시대였다. 따라서 한 사회 전체를 끌여가던 지배 권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를 맞이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그 권력을 대체할 새로운 권력의 출현 혹은 기존의 여타 권력의 대두를 필요로 했다. 독일 남부지역에서는 그 권력이 봉건 영주들과 협력한 루터의 개혁 그룹으로 넘어갔고 스위스에서는 시민대표라는 관료들과 뭉친 츠빙글리, 그리고 칼빈의 개혁 그룹으로 넘어갔다.

주류 종교개혁 그룹이 정치적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무대 위에서 정치권력의 조직적 세력화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동시에 지녀서는 안 될 비본질적인 요소를 함유하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종교와 정치의 관련성은 단순하지 않고 매우 미묘한 사안이다. 그러기에 그 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일은 단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당히 복잡한 작업이다. 다만, 역사의 교훈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종교가 정치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 그 종교는 본질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주류 종교개혁 그룹의 정치세력화는 교회 조직 자체가 정치권력형의 조직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교회의 생명력이 조직의 힘이나 권력체제

의 논리로 변질될 수 있음을 가리킨다. 본디, 교회의 존립은 그 자체의 생명력에 의존해야 한다. 정치권력조직의 속성인 강제성과 종속성이 작동 요소가 되는 순간, 교회는 본질의 과도에서 이탈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주류 종교개혁은 초기 기독교회의 역사를 잇기에는 시작부터 한계성을 담보하고 있었다.

주류 종교개혁자들의 불굴의 노력이 사회개혁에까지 새로운 역사 지평을 열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종교적으로도 교회의 내적 문제인 기독교 기본전리의 복구와 회복에 기여했다는 점은 기독교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불완전성은 그 이후 현대 교회에까지 부정적 유산을 물려주었다. 교회와 정치권력과의 친밀한 관계가 그렇고, 교회 내 조직의 정치적 성향이 그러하다. 당시, 주류 개혁 교회는 가톨릭의 정교일치의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그 고질적인 문제인 성직주의를 온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주류 종교개혁자들의 부정적 유산은 지금까지 주류 개신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정치권력과 지근거리를 선호하게 하였고 교회 내 성직자와 평신도의 분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로써, 성경의 직분 개념이 세상 정치 조직으로부터 배워 익숙해진 직위와 계급 양상으로 대체되고 말았다.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사회에서도 군림할 수 있는 지위를 얻는 것이다. 교회의 한 자리는 세상의 한 자리와 별반 다름이 없게 된 것이다. 세상 임금을 삼으려던 백성들을 뿌리치고 초라한 모습의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잊은 것이다.

또 한편, 정치권력과 가까워진

교회는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이 접근하기에 더욱 용이해졌다. 교회 직분은 얻기 쉬운 직위가 되었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교회를 버젓이 정치 활동의 도구로 삼으려는 자들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성경적 원리와는 상반된 정상배(政商輩)들의 이런 행태로 인해 교회가 얻은 것은 결국, 불명예뿐이다. 교회를 악용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줄곧 일어나는 일이다. 요셉은 하나님을 이용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기에, 때가 되자 시대의 인물로 쓰임 받았다. 그러나 옳지 못한 동기는 언제나 이 순서를 뒤집어 놓는다.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길은 세속적 권력의 길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 세속을 넘어설 수 있는 기독교의 강력한 무기는 도덕성에서 비롯된다. 신앙 공동체가 지닌 높은 수준의 도덕적 자질과 인격적 품위가 세상에 선한 지표와 모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세속과는 구별된 교회의 도덕성이야말로 시공을 넘어 역사 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영향력을 남길 수 있다. 그것은 어떤 정치세력의 권력보다도 강력한 것이다. 자연의 힘이 인위적 힘을 능가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된 생명력은 세상의 어떤 인간적 권력보다도 우위에 있다.

반복컨대, 교회의 생명력은 세상에서 도덕적인 형태로 드러나야 한다. 바로, 그 생명의 힘이 세상을 진정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원리이다.

아돌프 하르낙(1851~1930)은 “초기 3세기 동안 기독교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공동체적 삶의 도덕성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초대교회 생존의 힘은 도덕성에 기초했다는 것을 되풀이해 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공동체의 도덕성이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발현하는 본성이라는 점을 강조해야겠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교회가 기필코 물려받아야 할 진정한 유산이다.

수많은 행사들로 가득했던 종교개혁 500주년의 한 해가 저물고 있다. 그 행사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기독교의 도덕성은 과연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묻고 싶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자자,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사랑의 슬리핑백 나눔 행사”

감사의 계절, 우리 함께 주위를 한 번 돌아 봅시다

사랑나눔선교회와 창대장로교회(담임 이춘준 목사)가

오는 11월 25일(토) 오전 9시 샌버나디노 공원(San Bernardino Park)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 그리고 어린이,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슬리핑백 200개를 나누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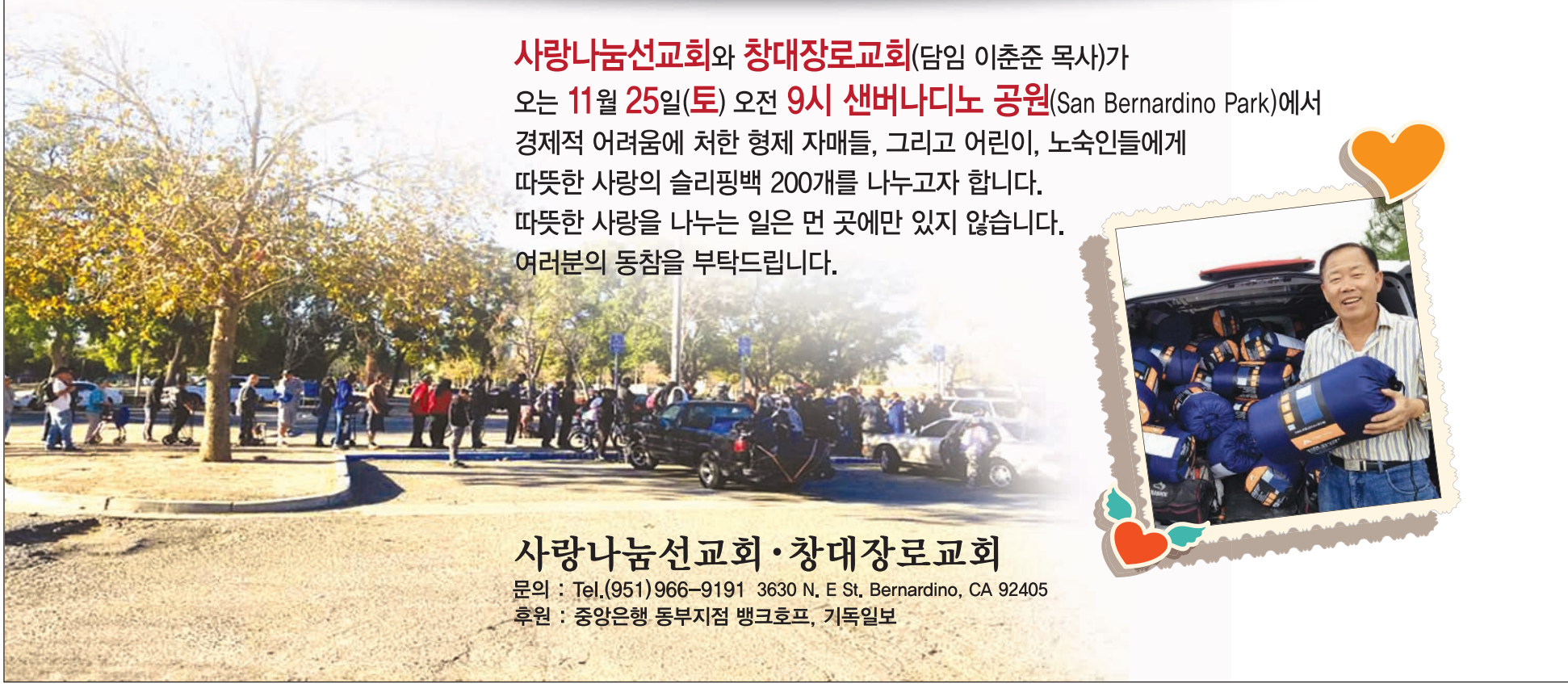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일은 먼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사랑나눔선교회·창대장로교회

문의 : Tel.(951)966-9191 3630 N. E St, Bernardino, CA 92405

후원 : 중앙은행 동부지점뱅크호프, 기독교일보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한 징계

사도행전 5:1~1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사도행전 5:1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5 아나니아야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6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7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9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10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12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4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죄악의 홍수에 휩쓸려 지옥으로 떠밀려 가는데도 교회만 잘 나오고 헌금만 잘해 주면 최고요, 일등교인으로 우대한다는 비판적인 지적도 있습니다.

이같은 실상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실 것인지 우리 모두가 양심으로 반성하며 교회의 정체성(正體性) 회복을 서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미국 신문에 일리노이 주에서 기사 한 분이 손님이 택시 안에 두고 내린 미화 20,000불을 경찰서에 맡기며 임자를 찾아 돌려주라 했을 때 경찰과 기자들이 감탄하며 이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게 해야겠다고 했을 때 택시기사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다소 겸연쩍고 당황한 듯 “저야말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이런 일이 신문 기사거리가 되어야 하는 현실 사회, 정직은 간 곳 없고 양심마저 실종된 채 죄악이 만연해 가는 이 세상이 한심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어느 사회보다도 훨씬 더 진솔하고 정직하게 신앙 인격적 수양과 가장 양심적인 생활신앙으로 본(本)을 보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징계를 멀리하며 영적 권위가 실추되면서 교인들의 심성(心性)은 죄의식(罪意識)의 불감증이 만연되어 교회와 사회가 구별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느새 교회의 본질적 기능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행4:31~33)

구브로 출신의 요셉(바나바)은 발을 팔아 사도들께 드림으로 예루살렘 교회 영적 부흥의 기폭제가 된 사실은 성령의 감동에 따른 순수한 믿음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감동으로 헌금하고파서 땅을 팔았으나 그 과정에서 돈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땅 값 절반을 감추고 절반을 사도들께 드렸을 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된 헌금 작정이 사단이 속물근성을 자극하며 미혹한 결과 끝내 써보지도 못할 절반의 돈을 감추고 하나님께 거짓말 한 죄로 부부가 공멸(攻滅)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시종일관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순수한 믿음으로 행동했으나 아나니아 내외는 사단의 미혹에 속아서 성령으로 시작된 헌금 작정이 육신적 물욕(物慾)에 이성을 잃고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즉사했던 것입니다.

3. 하나님을 속이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외에게 죽음을 선포한 베드로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이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즉시 그들의 생명을 거두신 사실로 확증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불같은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부흥 단계에서 아나니아 부부가 당한 무서운 징벌은 소름끼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기에 이 사건을 목격한 자들은 물론 듣는 사람들까지 크게 두려워 하더라고 했으니 징벌의 목적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초기부터 진리정통하고 성령충만하여 믿음의 순수성으로 성결해야 하고 영적 가치 절대주의 신앙으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지속되게 하시는 뜻으로 깨달아서 우리 모두 각성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구석 구석이 썩어가는 악취가 코를 찌른다 해도 교회가 진리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빛과 소금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만 하면 그것은 교회들로 인하여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대 교회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교역자들과 기도원 원장들이 먼

저 회개하고 죄악에 찌들어 멸망으로 치닫는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심성을 본받아 정직하고 진실하며 충성스러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보다 힘있게 쓰임받으며 세계를 향한 영적 부흥의 불을 지피시다.

본문 12~14절에 아나니아 부부의 죄에 대한 무서운 징벌이 있는 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신 것처럼 불의와 죄악이 교회 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권면과 징계를 과감히 실행하여 거룩한 교회로 부흥성장하면서 지역복음화와 놓여준 교회 재건과 세계선교에 주력할 때 주께서 어여뵈 보시고 성령께서 크게 도우실 것입니다. 교회부흥은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의 말씀을 기대하며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심을 명심 합시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현당. 김성원 목사 위임. 임직 감사 예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딤후1:12)

하나님의 은혜로 남가주 새소망교회는
 현당 예배와 제2대 김성원 목사 위임과 장로, 안수집사와
 권사 임직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큰 격려와 기쁨이 되겠습니다.
 - 김성원 담임목사 외 교우일동 -



김성원 담임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김영덕	박은성	박정혜
유경현	이광희	서미애
최공진	이동희	유애란
	조현대	정수경

■ 일시: 11월 26일(주일) 오후 4시 (562)674-3016
 ■ 장소: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말씀 집회

주제: 복음과 교회



김동호 목사

11월 24일(금요일)	오후 7시
11월 25일(토요일)	오전 6시
11월 25일(토요일)	오후 7시
11월 26일(주일)	오전 10:30
11월 26일(주일)	*오후 4시

장소: 남가주 새소망교회

* 현당. 위임. 임직 감사 예배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골드**로 활짝 웃으세요.



당뇨환자, 반드시 아연 섭취해야!

프로지 골드

PRO-Z GOLD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공팔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일수록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골드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 골드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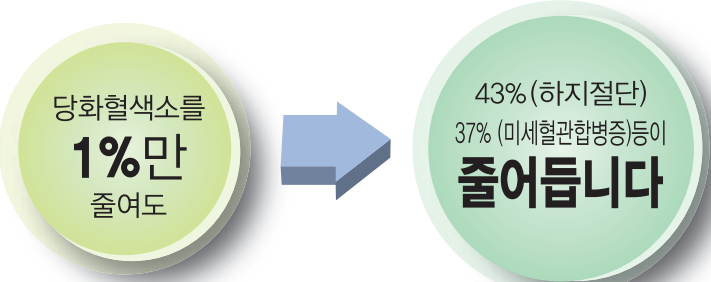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43%	37%	21%	14%	12%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미세혈관 합병증	당뇨병 관련사망	심장마비	뇌졸중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те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0+Tax
3병 \$170+Tax
6병 \$33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이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텔레마케터 모집
문의 : 949-864-9162



타코마중앙장로교회에서 열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추계부흥성회에서 설교하는 박종순 목사

예수의 마음 품고 모인 교회 공동체 돼야

타코마중앙장로교회 종교개혁 500주년 부흥성회

타코마중앙장로교회(담임 이형석 목사)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총신교회 원로 박종순 목사를 강사로 추계부흥성회를 개최했다.

박종순 목사는 부흥성회 기간 “예수 마음(빌립보서2:1-1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십자가의 길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겸손의 삶에 대해 강조했다.

박 목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과 맡지 않은 사람, 20년 이상 교회를 다닌 사람과 새로 나온 교인은 뭔가 달라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대처하고 판단할 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혹은 어떻게 하셨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담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신령한 복이 임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교회에 모이면 교회 역시 흥하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 독한 마음이나 나쁜 마음을 품은 자들이 모이면 교회는 불행해지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도 쇠락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 목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란 구절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셨듯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 또한 높여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방법밖에는 다른 지름길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오늘날 사회가 분노와 슬픔과 좌절로 가득 차 있다”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분의 빛과 소망을 세상 모든 만방에 전하는 성도들이 되자”고 전했다.

브라이언 김 기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한빛 복음집회가 열렸다.

종교개혁 기념 의미

“그리스도의 군사로 굳게 서는 것”

덴버신학교 정성욱 교수 초청 복음집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한빛 복음집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를 주제로 애틀랜타 한빛장로교회(담임 이문규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집회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신학교 조직신학 교수 정성욱 목사를 강사로 27일(금)부터 29일(주일)까지 열렸다.

집회 마지막인 29일 정성욱 교수는 “중세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만’으로가 아닌 인간의 선한 행위로도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을 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가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분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며 그 분을 의존하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여기며 감사해야 한다. 나 자신이 주인이 되며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 죄다. 죄의 삶은 곧 영적, 육체적, 영원한 사망이다(롬 6:23)”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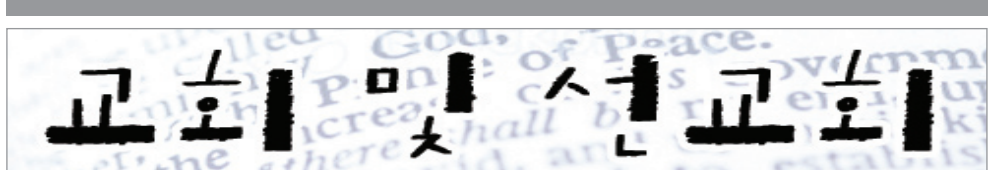
이어 정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

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은혜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며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오직 그 믿음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사실상 완성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선한 일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셨다. 나는 정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나는 오직 은혜와 믿음을 가진 자인가, 구원을 받은 목적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려는 열심과 열정이 있는 자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성욱 목사는 “오직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은 복음을 회복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선한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굳게 서는 것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의미다”고 덧붙였다.

윤수영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질중학교 / 토요일-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6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위한이며, 이민가정을 치료하여, 선교영광을 준비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5:00(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1377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을 9번지)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일한국교회 토 오전 10:00-오후 1:00
한미장년부 오후 1:30 오영미어회 오전 11:00-오후 8:0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이 넘치는 교회, 복음을 알리는 교회, 영적 리더를 배출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cl.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여왕님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오전5:30(월-금)
주일 2부 오전 11:00 새천년예배-오전 9:30
수요류티모임: 저녁 7:00 교회학교(Child Youth): 매주 주일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저녁 8:00

강양구 담임목사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434-1083 www.new2011.org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예배 오후 8시
주일 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중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주일 1부예배 (분양)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양)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양)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에(말미암에) (소매매일)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사랑하시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호름, 소.친 초 정신의 호름, 바른교회관의 호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hyu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애제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여왕님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shalomch.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조승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영아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일학교 오전 10:00-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무리에타 한인장로교회
믿음과 충성으로 서자
24736 Washington Avenue, Murietta, CA 92562
T. (951) 696-1034 / www.murietchurch.org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صلص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오전/월-금) 6: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inlandchurch.org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에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에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테레주)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최승목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에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 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령강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에 오후 7:3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EM성령강부 오후 7:00 (금)
금요일성령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령강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에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에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에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모이는 교회, 흠뻑이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일성령부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에 오후 6:00 성기대연설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령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일성령부(월-토)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령강부 훈련 오후 2:00
금요일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이호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연예) 오후 1:30
이름답디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롬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성령부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윤 목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후 12:45
수요일에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 90274
T.(310)715-9902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케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2:30 수요일에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인 이 일을 이루어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령부 오후 8:00 (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일성령부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사랑의빛선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김인식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령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재가 되어 3300 세계비전을 이루는 생명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최혁 담임목사

밸리채플 Valley Chapel LA에베레투스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토 5:00, 토 6: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9514 Firado St., Northridge, CA 91328 349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818)363-5887 Tel: (213) 232-3163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O. C. /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in.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일성령부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 (다들날) 7:00am
화요일기도회 7:00pm 토요일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성령부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매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정동성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에 오후 8:00

나성교회
Nasung Church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562) 690-7979 F.(562) 690-0038
www.nasungchurch.net




종교개혁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기독교학술원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 종교와 정치적 권위 해체

기독교학술원, 제29회 영성포럼 개최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 박사)이 3일 오후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종교개혁이 남긴 영향'이라는 주제로 제29회 영성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학술원장 김영한 박사의 개회사에 이은 김균진(연세대)·이은선(안양대)·김성봉(성서대) 교수의 발표와 백충현(장신대)·김주한(한신대)·라영환(총신대) 교수의 논평 순서로 진행됐다. 발표에 앞서 드린 예배에선 이상직 목사(호서대학교 명예교수)가 설교했다.

먼저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을 넘어서 서구 역사의 동력으로 서구 근대화와 사회변혁을 가져왔다'라는 제목으로 개회사를 전한 김영한 박사는 "루터의 종교개혁은 중세의 봉건사회를 근대시민사회로 이끄는 개혁운동이었고, 학문과 문화 영역에서 세계관 변혁을 야기한 운동이었다"고 했다.

김 박사는 "종교개혁은 오늘날 서구가 계몽주의를 거쳐 근대화를 가져오는 자유와 양심, 학문과 문화 예술, 경제 복지 분야에서 바른 인간 이성과 양심의 사용, 그리고 청지기 정신을 주었다"며 "그러나 서구의 근대화가 이성 중심으로 발전하고 하나님의 주권성을 상실하여 프랑크 혁명의 영향을 받은 세속주의로 발전함으로써 인간이 자연과 자신의 주인이 되고자 함으로써 오늘날 서구 사회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범람으로 인하여 동성애와 성차별 철폐운동 등으로 내면적으로 그 창조력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근대주의가 주장하는 인간 자유와 평등, 정의는 그 한계성을 인정하는 온전대와 제도장치인 하나님 주권 존중, 신본주의에 근거해야 한다"면서 "종교개혁은 근대정신과 더불어 인간의 청지기 정신(guardianship)을 물려주었다. 청지기 정신이란 인간이 자유, 평등, 양심, 정의의 절대적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치의 청지기라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이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만인 사제직은 모든 사람의 해방

첫 발표자로 나선 김균진 교수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치, 사회적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루터는 사제직과 교황직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자들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사제, 주교, 교황은 특별한 권위를 가진 계급이 아니라, 신자들에 의해 세워져서 신자들의 권한을 대행하는 인물에 불과하게 된다"며 "이것은 교황의 특별한 권위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곧 당시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강한 종교, 정치적 권위의 해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만인 사제적, 곧 '모든 신자들의 사제적'이라 할 때, 우리는 '모든 신자들'을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중세기 신성 로마제국의 교회는 국가교회였다"며 "그러므로 모든 국민들이 법적으로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로 가진 그리스도인, 곧 신자들이었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의 사제적'이란 말은 당시의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의 사제적'이라 말할 수도 있다. 모든 국민이 사제들과 동등한 영적 신분에 속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루터의 '만인 사제적'은 신성 로마제국을 지배하는 가장 강한 종교적,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해방하는 해방의 사건, 정치적 사건이라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신성 로마제국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교황의 종교-정치적

권력에 대한 개혁자들의 저항은, 세속의 통치자들의 정치적 권력에 대한 저항의 시작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이리하여 30년 전쟁(1618~1648)과 함께 마무리 된 종교개혁 후에 세속의 통치자에 대한 저항과 자유의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 바로 여기에 종교개혁의 사회, 정치적 영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근대 '자유역사'의 시작이었다. 프랑크 혁명도 종교개혁이 선포했던 '자유정신'의 한 열매라고 하겠다"고 했다.

경제와 복지도 성경의 신앙 원리로

이어 '종교개혁자들의 경제관과 사회 복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이은선 교수는 "루터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은 만인제사장 원리에 입각한 직명소명설의 확립"이라며 "중세에는 사제들의 직업은 거룩한 소명이자 직분이었고 일반적인 직업은 속된 일이었다. 그리하여 성직자들과 일반인들이 신분적으로 다른 성숙으로 구별되어 있었다"고 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루터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신분상의 차별이 없다는 만인제사장설을 주장하여 성숙 사이의 신분적인 구별과 차별을 무너뜨렸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직자들의 직분만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소명인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근거하여 세상의 일반적인 직업들도 하나님께 부름받는 직업이라고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칼빈의 사상에서 자본주의적인 요소와 기독교사회주의의 요소가 함께 작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방향이 함께 사용되었던 것은 재산공유를 주장하던 제세레파의 급진적인 주장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밀려드는 피난민을 포함한 가난한 자들의 복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기독교적인 공동체 건설의 목표가 있었다"며 "종교개혁자들은 경제와 복지의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반은총의 입장에서 해결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오직 성경의 신앙적인 원리 하에서 해결하고자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도 경제 문제와 관련한 한편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측면과 함께 한국사회 전체의 부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좀 더 한국사회에서 정의와 형평성이 구현된다는 의식이 성장하고 경제적·문화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 수 있는 복지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종교개혁이 문화와 예술에 끼친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김성봉 교수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종교개혁의 기여로는 먼저 문화와 예술로 하여금 종교와 교회로부터 자유하도록 한 것과, 다음으로 교회 밖에서의 예술 활동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한 것, 그리고 삶의 전 영역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한 것 등을 말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 가운데 주의해야 할 것으로 김 교수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모처럼 얻은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의 자유가 방종으로 떨어지지 않게 살피야 하겠다 △다음으로, 신교 안에 자리하고 있는 신비주의의 영향을 배제하여야 하겠다 △맹목적인 예술 추구를 조심하여야 하겠다고 했다.

김 교수는 "신성 로마제국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교황의 종교-정치적



텍사스 주 제일침례교회 전경 ©트위터

텍사스 교회 총기난사 비극 초월하는 소망 잃지 말자

미국의 텍사스 주 서덜랜드 스프링스에 소재한 제일침례교회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져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교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휘튼대학교 빌리그래함 센터의 사무총장이자 교수인 에드 스테처 박사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마귀가 거룩한 성소를 침범했다”고 말했다.

스테처 박사는 “교회는 완벽한 장소다.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보다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다. 마음이 아프지만, 쉽게 마귀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곳이다. 대부분의 테러 사건에서 우리는 마귀와 연관된 동기를 찾을 수 있다. 마귀는 어디에 선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주 텍사스 교회의 총기난사 이후, 더 많은 교회가 보안 수단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테처 박사는 “비극 가운데 있는 소망은 기독교 신앙이 가진 속성”이라며 “기독교인의 삶은 영생의 빛 속에서 사는 것이다.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온 이들은 지금 하늘에서 영원히 예배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 답이 없는, 지금과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절망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앞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과 그들이 모두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그곳(천국)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칸소에 소재한 크로스교회 로니 플로이드 담임 목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중요

로 인한 테러가 우리의 거룩한 예배 장소에서 발생했을 때, 이는 우리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라와 세계를 보호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달라스의 제일침례교회 로버트 제프리스 담임 목사 역시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치유의 가장 핵심은 이러한 비극을 초월하는 소망을 갖는 것이다. 이 교회를 비롯해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폭풍이 몰아치고 비극을 겪을 때, 어딘가에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빛이 있고 진리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텍사스 교회 총격범의 범행동기는 가정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CNN 등은 6일 데빈 패트릭 켈리(26)는 자신의 장모가 다니던 교회를 노려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텍사스 주 공공안전국 프리먼 마틴 국장은 CNN과의 방송에서 “켈리에게 가정문제가 있었으며, 그의 장모가 다니던 교회를 목표로 삼았다”면서 “켈리의 장모 또한 그에게 여러 통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켈리의 장모는 사건 당일 교회에 오지 않아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결국 그는 장모가 교회에 갔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차별 사격을 가한 것이다. 사망자가운데는 생후 18개월 된 아이도 포함돼 있었다고 주 경찰은 전했다.

강혜진 기자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 소송을 당한 잭 필립스 씨 ©ADF 제공

미국인 68%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 거부 가능”

68%의 미국인들이 ‘제빵사는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에 반할 경우, 동성결혼식을 위한 케이크 제작을 강요받았을 안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워싱턴 D.C.에 소재한 카토 인스티튜트(the Cato Institute)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결과가 포함된, 미국인들과 관련된 다양한 언론의 자유 및 사회 문제들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국인들의 50%는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일에는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서비스 제공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했고, 32%는 ‘제빵사는 반드시 동성결혼식 케이크 주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68%는 “제빵사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될 경우, 결혼 케이크를 반드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 이슈와 관련해 대체적으로 반대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42%는 동성결혼식에 사용할 케이크를 굽는 것은 그 결혼식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답했다.

반대로 개신교(26%), 가톨릭(27%), 기

타 종교(28%)의 경우 약 4분의 1 정도만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제빵사가 동성결혼식에 쓰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반대했다. 약 66%가 “그(그녀)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해선 안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0% 정도만 사람들이 이 빵집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답했으며 12%는 제빵사가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6%는 그의 자격증을 박탈해야 한다고 답했고, 1%는 그를 교도소로 보내야 한다고 답했다.

강력한 진보주의자들의 대다수(66%)는 “정부가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제빵사를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정부가 빵집이나 제빵사를 상대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온건주의자와 강력한 보수주의자들은 각각 22%와 4%였다.

카토 인스티튜트는 지난 8월 15일부터 23일까지 유고브와 함께 2,547명의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3%, 신뢰수준은 95%이다.

강혜진 기자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학교 11:00 AM **이원준**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예배 화-금요일 5:30 AM
 주일 3부예배(영아) 1:30 PM 토요일 8:30 AM
 금요찬양예배 7:30 PM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8132gospelchurch@gamil.com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셀가죽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562) 524-2037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2:20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빈**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C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은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 (청년 영어) **박경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 (토)
 4부예배 오후 1:30 (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 (청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 7:30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일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김인철**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Orange Cannan Presbyterian Church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 (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성령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 :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1937 W. Chapman Ave. #105, Orange, CA 92868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AMES KWA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PASTOR SAM KOH**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ola.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L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PASTOR STEVE CHANG**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제24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2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7년 12월 16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가주치과 대표 오덕재 원장,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솔종합보험,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재), 라이온스클럽, 올림픽 칼국수

후원 기독교일보, FH미선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담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본 교회는 창립 33년 되는 LA 소재 교회로 투철한 소명과 이민 목회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갈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1. 부 목사님(Full Time)

- 정규 신학대학원 이상 졸업자로서 목사 안수 받으신 분
- 40세 미만의 기혼자
- 한국어외의 영어 소통이 원활하신 분
-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2. Youth Group(중고등부) 전도사님(Part Time)

-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자나 재학중인 분
- 영어 설교 가능하고 이중 언어 가능하신 분
- 체류 신분이 합법적인 분

3. 찬양 리더(Part Time)

- 찬양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분으로 기타나 키보드로 찬양 리더가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 및 가족 사진)
2. 자기 소개서 (신앙 간증 및 목회 소명)

제출기한 및 방법

1. 제출 서류 마감 : 2017년 11월 30일(목) 까지
2. 제출 방법 : 모든 서류는 메일로 보낼 것

Email : lalkcyoon@gmail.com
lk0085@sbcglobal.net

사랑한인교회

2801 W. Temple St. LA., CA 90026
담임목사 하재석

역사와 문명을 정리하시는 하나님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회

아직도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 차다 이지러지기를 반복하는 밤하늘의 밝은 달, 헤아릴 수도 없이 뿌려진 하늘의 많은 별들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계절과 땅을 적시는 비, 결실을 가져오는 따가운 햇살과 흐르는 시냇물은 우리의 감사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약속합니다. 그곳에서 자연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의 굴레인 죄악이 처리되고 악한 문명과 권력이 정리된다고 말합니다. 계시록의 중심에는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는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재앙과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세상이 심판 받으면서,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계시록 16장에 소개된 일곱 대접 재앙은 특히 악의 세력인 큰 바벨론과 이에 속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패배를 비교적 자세로 예언합니다. 진노의 대접 재앙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과 선지자를 죽인 사탄과 그의 하수인에 대한 징벌입니다. 사탄의 영향력 아

있는 죄악마저 해체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던 세력이 완전히 파괴되고 선과 아름다움과 덕스러움과 사랑과 교제와 평안이 가득한 새로운 질서가 열린다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감사의 제목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세상의 문명과 역사를 정리하신 후, 더 이상 사탄의 유혹이 없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된 악인이 없어집니다. 권력의 타락과 부패가 없고, 경제의 부정이나 착취가 없습니다. 문화의 타락과 왜곡이라 할 수 있는 우상숭배와 비진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 풀리니 다행입니다. 인간의 사슬과 억압적인 구조가 해체되어 제도와 문물이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감사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문명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는 사랑의 지도자요, 모든 문명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질서요, 모든 제도는 섬기기 위한 영적 도구이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런 날의 도래는 영원한 감사로 우리를 미리 노래하게 만듭니다.

감사의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 악의 세력이 붕괴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환경에 스며들어

사람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여러분은 어느 쪽에 걸고 싶습니까? 사람은 변한다, 아니면 변하지 않는다? 아마 자기의 경험에 따라 결정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변하는 것이 좋은 소식인지, 아니면 나쁜 소식인지입니다. 평소 얌전하고 좋았던 사람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 사람이 안 변했으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우는 사람의 게으른 모습, 참지 못하고 거칠어지는 성격, 욕심 많은 모습, 자기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 등을 보면서 사람이 좀 변하기 바랄 것입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변화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변하지 않고, 죄를 꾸준히 짓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이러한 죄인도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변할 수(거듭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은 '사람은

이지만, 성경은 그것은 변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에 불량배로 살던 친구가 '변화'를 받아 목사가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자기가 회개하고 변화 받아 목사된 신상을 올리자, 옛날 친구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야, 이 XX야, 니가 무슨 목사냐?" 부터 시작해서 "그럼, 축하해야지, 우리 못쳐서 한잔해야지"까지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야단이었습니다. 얼마 후 또 다른 친구가 변화를 받아 장로가 되었다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목사된 친구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야, 이 XX야 니가 무슨 장로냐, 그 교회 곧 문 닫겠다" 했습니다.

자신이 변화된 것을 경험한 자는 남들도 변할 수 있다는 소망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변하고 변해가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중 안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예수님 만나 변해가듯이 그분들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 참 안 변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변했고, 변해가고 있거든요.

실패를 딛고 전진하기 (10)



제이슨 송 교장
세언약초중고등학교

어떻게 해야 실패라는 고속도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Wake Up, 즉 깨어나는 것입니다. 실수를 범하거나 실패했을 때 우선 우리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과 상황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그릇된 행동과 태도를 인정하고 수정하여 다시 재 도전하는 사람은 발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신을 차린다는 말입니다.

리더십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위대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실수를 범한다.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아본 사람을 최고 경영자로 추천하지 않겠다. 실수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그저 안전한 추구하는 평범한 사람이기에 그렇다." 제가 참 존경하는 경영 전문가 피터 드러커의 명언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을 내어 우리가 범한 실수나 경험한 실패를 차분히 생각해 보고, 그런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남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기 전,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인하고 수정하여 다음에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바라는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식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잘 돌봐주어도 결국 부모를 떠나 홀로 서야만 하는 인격체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줘야 할 것은 많은 권력, 직업, 재산,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 태도, 그리고 성품입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지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저는 1999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초중고등학교(New Covenant Academy)를 설립하여 지금까지만 18년간 교장으로 섬겨 왔습니다. 그리고 그간 많은 학생들이 실패와 좌절의 악순환에서부터 벗어나 성공의 길에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시간이었는지요. 그리고 현재 지도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도 이러한 회복의 과정을 걸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새 언약학교를 기억하고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길로 인도하도록 기도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은·예진 입양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신애라 씨, 임마누엘장로교회에서 간증 “입양은 선교”

미국에서 유학 중인 배우 신애라 씨가 최근 산호세에 위치한 임마누엘장로교회에서 간증을 나눴다.

신애라 씨는 “간증을 할 만한 드라마틱한 반전 같은 이야기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간증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가시는 과정과 삶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서 간증의 문을 열었다.

신애라 씨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29살이었다고 한다. 결혼 생활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신애라 씨는 “우연히 성경공부를 하게 됐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 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는데 사랑할 수 있겠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잘 몰랐던 것은 성경을 잘 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면서 “다음 세대에게도 성경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저 산타클로스나 수호 천사처럼 여겨져서는 안된다. 창조로부터 시작해 가인 아벨 이후 성서의 계보를 스토리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애라 씨는 “이것에 대해 알려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저도 쉽지 않다. 하지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대학 가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서 “내 자녀가 대학에 갔는데 교회를 등한시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때 나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애라 씨는 “남편에 대해서 안 풀리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다. 남을 탓하고 비난하기 전에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음성이었다. ‘내 아들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너 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느냐’는 메시지였다”면서 “우리는 다른 이를 비판하고 정죄할 권리가 없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의무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애라 씨는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읽으며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됐다. 신애라 씨는 “나의 성격,

상황, 성격, 외모 등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목적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소 연기자로서 상을 받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상을 받게 되면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라는 인사말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런 기회는 잘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으로 나를 지으셨음을 알게 됐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목적과 소명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애라 씨는 “그 책을 읽고 나서 내가 가고 싶은 연기라는 길을 그동안 열심히 걸었지만 이제는 가야 하는 길을 선택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됐다. ‘가야 하는 길은 무엇일까’ 의문을 갖게 됐고 그 길 중에 하나가 미국 유학 길이었다. 나이 오십이 다 되어서 미국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말했다. 저도 처음 유학길에 오를 때는 두렵기도 하고 막연했다”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좋아하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온 길”이라고 말했다.

신애라 씨는 “미국에 온 지 3년이 지나면서 알게 됐다. 이 공부를 해야 됐었구나. 이제 올 때도 은혜로 왔으니 떠날 때도 은혜로 떠난다. 때로는 미세먼지도 없고 전쟁의 위험도 없는 이곳에 계속 머무르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순종해서 한국에 갈 준비가 돼 있다”면서 “순종은 왜 해야 하는지 처음에는 모르지만 일단 따랐을 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애라 씨는 가야 하는 길에 대해 기도하면서 ‘컴패션’이라는 단체에 대해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컴패션은 제3세계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과 일대일로 결연해 후원하는 것을 지원하는 단체로 한국의 전쟁아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한국이 도움을 받는 처지에서 후원국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컴패션에서 활동하면서 신애라 씨와 그의 남편 차인표 씨도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다고 한다. 신애라 씨는 “남편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지저스 지저스’라는 뮤지컬에서 예수 역할을 무급으로 맡았을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다. 하지만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내 대신 동인도 지역 컴패션 비전트립을 떠났을 때였다. 거기 싫어 억지로 떠밀려 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어린이에게 하나



과거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컴패션 홍보대사 차인표·신애라 부부 ©한국 컴패션 제공

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그 손을 잡았을 때, 남편은 그 어린이의 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고 고백했다.

신애라 씨는 “컴패션을 하면서 느낀 것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이웃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이 말씀의 비밀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나를 위한 말씀임을 깨닫게 됐다. 봉사하시는 분들 만나면 ‘누군가를 돕는데 왜 내가 행복할까요’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고 말했다.

신애라 씨는 두 딸을 공개 입양한 사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에게 주신 내 딸란트는 연기가 아니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마땅히 누리고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내 딸란트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입양에 대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나와 내 두 딸들, 가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

신애라 씨는 두 딸이 11살, 9살로 아직 어리지만 동역자로 준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아이들을 통해 입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특별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족이라는 관계는 단순히 혈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님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면서 “입양은 흔히 버려진 아이들이 가정을 찾는 것을 입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인식부터 변해야 한다. 이 아이들은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생모가 키울 수 없고 낳을 수 없는 상황임

에도 끝까지 ‘지켜낸 아이들’이라고 했다.

신애라 씨는 두 딸 예은이와 예진이에게 이 사실에 대해 항상 말해준다고 한다. 신애라는 “아이들이 입양에 대해 한 가족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다른 입양이 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해 너무 마음 아파한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까 궁금하다”고 말했다.

신애라 씨는 “이 아이들을 만약 입양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내고 있을까. 너무 소름끼치게 무섭더라”면서 “입양은 선교다. 아기 때부터 복음을 전하면 쉽게 받아들인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예은이, 예진이가 있다. 미국에 와 보니 입양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이지만 실제로 입양한 가족은 별로 없었다”고 입양에 대한 관

심을 촉구했다.

신애라 씨는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혈연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인들에게 입양은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장기위탁제’이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돌봐줄 가정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 시설은 일대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을 경험할 수 없다”면서 “주위를 돌아보면 예은이, 예진이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이 많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아이들”이라고 말했다.

신애라 씨는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쓰여지지 않는 달란트는 땅에 묻혀 있는 것과 다를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지상명령이다. 그것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란다”면서 간증을 마쳤다.

이미경 기자



신애라 씨와 컴패션이 돕고 있는 어린이들



종교개혁의 유산 및 현재적 의미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개신교파간의 소통과 형제애를 확인하고, 한인 교회에 주어지는 종교개혁의 현재적 의미와 실천적 시사점을 공유하여, 미주 한인 교회 및 사회의 연합과 변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종교 개혁 500주년 기념 LA 기운실 건강교회포럼

- 주제 발표**
옥성득 교수
UCLA, 한국교회사
- 패널토론사회**
안재엽 변호사
LA 기운실, 실행위원
- 패널토론**
민중기 목사
총현선교회, 담임목사
- 패널토론**
곽건용 목사
향린교회, 담임목사
- 패널토론**
허현 목사
Mountain View Mennonite Church, 담임목사

- 일시**
2017년 11월 18일 (토) 오후 3시
- 장소**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강당 (3층)
313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 주최 및 문의**
LA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13-387-1207 | email4lacem@gmail.com | www.lacem.org

행사 후 저녁 식사와 교제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 송금·환전 지급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프린트CD+CD봉투+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명품 과일 판매
 Thanksgiving 선물용

아주 맛있는 과일 농장에서
 직접 받아 판매합니다.
 한인타운내 무료 딜리버리 가능

T.(213)400-4149 **Cash Only**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인하소반주 각종 김치

626-731-7864 (\$40이상 주문시) 무료배달

갈비만두, 매운갈비만두 (40개 \$20)
 김치교자, 부추교자 (50개 \$20) 왕만두, 팔짚빵 (10개 \$10)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 마디관절 { 손목, 발목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2018 NEW CALENDAR

Best Seller
 2018 성경 통독 도우미 달력

최소 100부 \$3.5 ea

주님미디어 323.265.0244

칼리그래피 탁상달력 주님미디어에서 직접 쓴 붓글씨로 제작하였습니다. 달력이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New 말씀통독 달력버전
 기도제목 칸과 말씀통독할 수 있도록 모든날짜에 말씀 범위가 적혀있습니다.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열두달의 삶을 컨셉으로 만들어진 주님미디어의 2018년 달력은 두가지 버전으로 준비 되어 있습니다.

323.265.0244

일반캘리달력과 1년통독달력으로 원하시는 것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기본수량은 100부이며 다른수량을 원하시는 교회나 공공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시면 바로 상담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님안에서 승리하시고 기쁨의 2018년도를 준비하시길 기도합니다.

70mm 250mm 180mm 160mm

주님미디어 323.265.0244

교회예배찬양(공용버전)



구주 탄생 교회와 겐손의 문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50)

구주께서 탄생하신 빵집 베들레헴

베이트는 집(house)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빵(bread)이라는 뜻이다. 즉 빵집이라는 히브리어 뜻을 베들레헴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처럼 도시 주변에 강이나 호수는 없지만 유다 산악지대 다른 곳에 비하여는 평야가 있는 편이다. 해발 800m 정도 되는 이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져 있다. 아랍어로는 고기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니 소출이 풍성한 곳이었다는 사실인 것 같다. 아무래도 베들레헴을 이야기하자면 야곱의 처 라헬이 언급된다. 야곱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이곳을 지나게 되고 라헬이 예브라다(미가5:2)라고 불렀던 이곳에서 베냐민을 출산하고 죽는다. 그리고 이곳이 라헬의 무덤이 된다.(창35:16-19) 1995년 12월 25일 부모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자치도시가 되었지만 라헬의 무덤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있다. 라헬의 무덤은 베들레헴 장벽을 넘어서 약 30m 전방에 있는데 군사 요새를 방불케 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상시 이스라엘 군인들이 주둔하여 통제한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곳을 향하여 계속 기도하러 찾아오고 있다.

다음은 보아스와 룯의 만남이다. 베들레헴 동쪽 평야에서 그들은 만났고 룯은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된다.(룯4:17)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보아스와 룯의 만남은 그리스도 오심을 예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조건과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룯의 하나님으로 확증된 것이 보아스와 룯의 만남이다. 다

윗은 이새의 8번째 딸째 아들로 이곳에서 출생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부음을 받고 엘라 골짜기 사건 이후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다. 예루살렘으로 천도하였을 때 이곳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다. 다윗이 어느 날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기 원하자 3명의 용사가 블레셋 군대를 뚫고 베들레헴 물을 떠온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좋다. 충성스런 사람이 해야 될 도리와 용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이다.(역대상11:15-19)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은 이곳에서 다윗의 직계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였다.

헤롯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구주 탄생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들을 때면 밤하늘의 별들이 생각나고 구유에 놓은 아기 예수와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과 그 지경의 목자들이 생각한다.

베들레헴 구주 탄생 교회

베들레헴에 있는 구주 탄생 교회



베들레헴의 모습

는 AD 336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모친 헬레나에 의해 처음 건립되었다. AD 550년 저스틴 황제 때 크게 확장하였으나 614년 페르시아의 침입으로 파괴되고(지금 교회 안에 바닥 모자이크는 남아 있다. 모자이크 그림 중의 동방박사가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부수지 않았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다.) 십자군 시대 중건하면서 이민족 군사들이 말을 타고 거룩한 교회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문을 1m 20cm 정도로 만들었다. 일명 '겐손의 문'이라는 이곳은 세상의 군왕이나 박사들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만 한다. 좁은 문을 통과하면 초기 바닥 모자이크가 있고 열주들이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측 계단을 타고 동굴로 내려가면 약간 어두운 공간과 만난다. 웅덩이 같은 공간은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이스라엘선교회

마리아 제단 혹은 동방박사 제단이라고 부르고 우측의 베들레헴 탄생 별이 새겨진 곳은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이다. 이곳에 들어온 순간 당혹스러운 것은 마구간의 모습도 아니고 여관의 모습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기념교회가 지형을 변경시켰겠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당시의 가족우리는 오늘날과 달리 자연동굴을 인공적으로 다듬어 사용했다는 것이다. 베들레헴은 석회암 지대로 이러한 석회암 동굴이 400개 이상 있었다고 한다. 자연적인 모습은 탄생 교회 옆에 있는 우유동굴교회나 동쪽 평야 지대에 있는 목자들의 들판교회에 가면 자세히 볼 수 있다. 탄생 동굴에서 나오면 아르메니아 정교회 제단이 조그마하게 있고 이곳을 지나 북쪽 문으로 들어가면 지하에 제롬의 동굴이라는 곳이 있다. AD 400년 제롬은 이곳에서 40년 가까이 살면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였다.(벨게이트 역) 제롬은 이곳에서 죽어 묻히므로 그의 무덤이 동굴에 같이 있다. 예수 탄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제롬은 이 사실을 당

시의 세계 언어인 라틴어로 알리고 싶었다. 이 동굴의 입구 쪽에 요셉(예수님 부친)이 꿈을 꾸었던 광장이 있다.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애굽으로 피난간 계기가 된다.

1717년 이 탄생 교회의 청소 권한을 놓고 종파간 큰 싸움이 있었는데 도끼가 난무하는 싸움이었던다. 교권과 재산 싸움의 무서움을 잘 나타낸 사건이다. 구주 탄생이 하늘에서는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베들레헴 인구 중 기독교인의 비율이 점차로 줄어들고 무슬림들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걱정이다. 베들레헴 시장은 상징적으로나마 기독교인이 한다고 한다. 그게 무슨 소용인가? 구주 탄생 장소에 구주를 믿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 구주 탄생이 온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 되게 하기 위한 기독교인들의 부단한 선교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 땅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는 열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계속)



목자들의 들판에 있는 천사 동굴

무료 건강검진 클리닉

2017년 11월 12일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나눔과 섬김의 교회와
세계 의료 선교회가 함께하는
지역 사회 섬기기 프로젝트

대상: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 한방 상담 및 침, 뜸 치료
- 종합 초음파 검진
(간, 췌장, 담낭, 콩팥, 유방, 전립선, 자궁)
(경동맥, 갑상선, 중풍예방)
8시간 금식 후 물 5컵 정도 마시고 오세요
- 종합 혈액검사(실비제공진료)
- 독감 예방주사(실비제공진료)

(재해지역: 백시코시티지진, 허리케인하버, 어마, 이재민구호) 후원: 세계의료선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 TEL.213-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고
꿈과 사랑이 가득한
은혜의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요
치유예배

Healing & Happiness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
-요한복음 15장 7절-

나눔과 섬김의 교회

SHARING & SERVING CHURCH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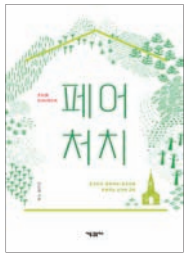


신간 도서

페어 처치

이도영 | 새물결플러스 | 408쪽

그동안의 선교적 교회 논의를 충분히 소화해 재구성하고, 한국교회 체질에 맞는 '토종' 선교적 교회론을 경험해 통해 펼쳐 보인다. 저자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특정 색깔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균형을 잃거나 세속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온전한 선교적 사명을 상실했으며, 지나치게 복음을 개인의 영성과 개교회 중심으로 환원해 공공성을 놓쳤다고 진단한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치유의 시간

김민정 | 생명의말씀사 | 176쪽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문을 모아 놓았다. 어떤 인간보다 깊은 아픔을 가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병상은 가장 위대한 축복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상황마다 간절함이 다르기에, 각각의 상황에 맞춘 기도문으로 구성돼 있다. 병을 알게 된 순간부터 병상 생활을 하고 치료하는 과정,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극복까지, 그 간절함을 기도문 안에 오롯이 담았다.



그림 속으로 사라진 남자

넬리 허먼 | 안창준 역 | 이르비 | 360쪽

목사가 되기를 꿈꾸었던 청년이 화가로 살게 된 결정적 체험을 소설로 담았다. 그 유명한 반 고흐의 깊은 내면과 삶의 모순성에 정직하고 진지하게 접근하고, 미술사적 고증과 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벨기에 보리니주 탄광촌의 전도사 시절 3년을 복원했다. 이 책은 고흐가 '광기 어린 천재 화가'였다는 박제된 시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



유대인의 탈무드 경전

마빈 토카이어 | 박안석 편역 | 빅북 | 320쪽

유대교의 랍비인 마빈 토카이어가 첫째 교육에 대한 집념, 둘째 권위에 대한 도전 정신, 셋째 낙관적인 불굴의 의지, 넷째 주체성의 확립 등에 중점을 두어 재해석한 탈무드 해설서라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유대인들의 지혜로운 처세술을 만끽할 수 있다. 유대인의 율법에 관해 1,200년 동안 랍비들이 토론하고 재해석한 방대한 내용을 10년에 걸쳐 2,000명의 랍비들이 정리한 것이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터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자본주의화되는 교회 현실, 치열하게 고민하다

이 책은 자본주의의 시작과 교회와의 연결, 그것이 주고받은 영향들, 전망, 그리고 그에 대한 분투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주제만으로도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는 주제들을 거대한 크로키를 그리는 듯한 과감한 필치로 보여준다. 이러한 그림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다른 저자가 읽었던 책들과 그것을 정리해내며 인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의 인용과 정리는 그 자체로 주목과 같다. 그러한 인용과 정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고가 눈에 보이는 듯 하고, 서문에서 보았듯 공부하고 싶지만 공부하지 못하는 목사들을 위해 대신 공부해 준 것 같은 친절함을 느끼게 된다.

개인적으로 신학과 관련되지 않은 주제의 저자들에 대해,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이들이 있다. 이 책을 읽다가 그러한 저자들의 책을 찾아보게 되고, 구입도 하게 됐다. 그러한 면에서 이 책은 자본주의를 관통하며 교회적 문제를 고민하는 데 꽤 쓸모 있는 가이드북 역할을 할 것 같다. 저자는 교회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제목 그대로 '씨름하는 관계'로 해석한다. 너무 쉽게 자본주의를 배척하고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기를 꺼린다. 그것은 지나치게 비현실주의적 언사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교회가 분명하게 자본주의적 폐해를 인식하고 대응해야 함에 대해 지적한다.



교회, 자본주의와 씨름하다
김영배 | 부크크 | 235쪽

개인적으로는 에필로그가 참 좋았다. 독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을 만한 시점에 겸손한 자 기대담을 달아놓은 듯하다. 그 에필

로그를 통해 저자의 분투를 보며, 어떠한 삶을 지향하고 있는지 힌트를 볼 수 있었다. 이 책은 저자의 입장에서 추구할 수 있는 최대치다. 지역교회 북부사의 입장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냈다. 그리고 비판해야 할 것에 대해 축약적으로, 그러면서도 나름 신랄하게 지적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와 입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가 더 자유로운 입장에 있다면, 공부에 머무르지 않는 독창성이 더 드러났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아쉽다. 마지막 장인 '육망의 지도'는 그 이전의 과감한 스케치에 비해 좀 밋밋해 보

이는 것이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이야기해 보자. 우리는 교회가 자본주의화되는 현실을 보고 있다. 이미 교회 안에 현실이 되어 버린 자본주의의 문제를, 우리는 두루뭉실하게 지적하고 만다. 근본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하며 그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도 저자처럼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며 그 실체를 밝히고 우리의 대답을 내어놓아야 한다. 이 책은 그러한 진지함의 산물이며, 그 진지함의 산물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대답을 내어놓아야 할 당위를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분투에 참여하고픈 동지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그루터기 공동체 박근호 목사

2017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교육(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영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ueu.edu, aeu@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회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시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땀과 눈물로써서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213)381-7755 Fax.(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업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다문화와 다종교 상황 한국 사회에 중요한 '예방 주사'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텍스트와 실제

한국 개신교회의 소위 정통 보수 교단에서는 니체를 읽지 않는다. 또한 개신교회는 종교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사회와 정치의 영역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즉 한국 개신교회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볼 때,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다른 분리된 두 영역이다. 물론 기독교장로회 같은 교단 중 몇몇의 교회들이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체적 분위기가 한국 개신교회에서 교회와 세상은 분리된 두 영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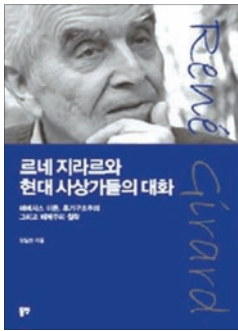
저자가 책에서 언급하고 있듯, 포스트모던 사상은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서 금지되던 니체와 하이데거의 사상을 프랑스 학자들이 언어학적으로 변조하여 탄생한 사조이다. 사실 니체는 한국교회 안에서 대부분 반그리스도교적이고 미치광이로만 알려져 있다. "신은 죽었다"라는 부정적인 말만 강단에서 가끔씩 회자될 뿐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종교적 현상과 절대 진리에 대한 부정적 견해, 교회의 가르침을 율법적이며 권위적 억압이라고 생각하고 느끼기 시작하는 현상들이 바로 포스트모던 현상이고, 그 뿌리에는 니체와 하이데거, 그리고 이들을 아름답게 포장한 프랑스 철학자들이 있다.

현재 한국 개신교회에서는 탈종교, 탈진리, 탈권위 등의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실 이제야 한국에 포스트모던적 붐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서는 매우 시의적절한 책임에 분명하다.

본서는 르네 지라르의 문화인류학적 미메시스 이론인 미메시스 욕망 이론을 포스트모던적 철학사조들과 비교·검토하면서, 포스트모던 학자들이 기호와 텍스트 안에 갇혀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즉, 언어유희적 포스트모던 학자들의 한계들과, 니체와 하이데거에 의해 유럽으로 수입된 서양 불교가 세계 철교로 잘못 오인되는 점을 함께 밝히고 있다.

이것은 포스트모던 학자들이 텍스트 중심에 머물렀던 반면, 지라르는 텍스트 너머에 있는 실제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이다(정 박사는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즉 지라르는 포스트모던 철학자들의 텍스트 중심 해석의 한계를 폭로했다. 예를 들어 디오니소스적 축제의 신화 텍스트는 텍스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폭력이 있었고, 그것이 인류 문화와 세계 질서의 유지를 위한 신화와 우상종교의 실제 작동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르네 지라르와 현대 사상가들의 대화 정일권 | 동연 | 362쪽

지라르는 자신의 문화인류학적 미메시스(모방) 이론을 통해 축제(우상종교 제의)와 텍스트 안에 숨겨져 있던 희생양에 대한 폭력을 증명해냈다. 정 박사 본인의 연구인 원시불교 또한 세계 포기자들인 붓다가 희생양들로 그들 안에 있는 차이 소멸이라는 폭력적 문화를 드러냄으로써, 현재 힐링의 종교로 불리는 불교의 근원적 민낯을 드러내고자 한다.

서양철학을 '니체 이전과 니체 이후'로 나눌 만큼, 근대철학에서 니체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즉 서양철학의 중심인 플라톤의 형이상학적 존재론 흐름에 반기를 들고,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철학으로 회귀를 시도하여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니체이기 때문이다.

그는 유럽의 그리스도교 사회의 억압과 권위적 태도에 반기를 들고, 플라톤적 로고스에 가까운 그리스도교에 대해 포스트-그리스도교로서 '헤라클레이토스적 로고스'를 주장한 것이다. 즉 기존 그리스도교 중심적 텍스트 해석을 해체하고, 원시 그리스 철학적 텍스트 해석으로 회귀하고자 했다. 니체가 그리스도교의 대안으로 찾은 것이, 바로 디오니소스적 축제와 동양의 불교이다.

그러나 정 박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밝히듯, 니체와 하이데거의 허무주의를 좇는 포스트모던 학자들은 인간 희생양인 파르마코스를 기호와 텍스트적 관점으로만 해석해 그 속에 숨겨진 차이소멸적 폭력성의 실재를 놓치고 있었다. 또 지라르의 문화인류학적 해석이 텍스트 너머에 있는 희생양에 가해지는 폭력의 실재를 보게 해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 박사는 특히 힌두교와 불교의 희생양의 제의적 의미를 밝힘으로써, 니체와 그의 추종자들이 말하는 불교의 근원이 결코 치유적 불교가 아니라 희생양(붓다)를 통한

초석적 폭력의 제의와 사상을 가진 종교임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니체와 하이데거가 나치였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되기도 한다(그리스도교 문화권이던 유럽은 니체와 하이데거를 통해 불교가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불교를 명상과 힐링의 종교로 번역됐고, 이에 그리스도교의 대안으로 유럽에서는 인식됐기 때문에 불교의 본모습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이, 불교에 대한 한국의 정서와는 조금 다른 면이다).

본서가 가진 장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니체와 하이데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어렵지 않다). 둘째, 포스트모던 학자들의 해석학적 한계를 통해 그 사상의 전체적 관점과 결론들의 이유를 알 수 있다. 셋째, 지라르의 문화인류학적 해석의 욕망적 미메시스 이론이 얼마나 탁월하고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앞으로 이 해석이 성경해석학에도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지 매우 궁금하고, 두렵기도 하다. 이 책에서도 설명되고 있듯 지라르는 포스트모던 학자들이 다시 유대-그리스도교로 회귀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준 학자이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지라르에 대한 애정과 사랑, 그리고 확신은 감동적이다. 즉 저자의 지라르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사랑과 한국교회에 대한 사랑이라 생각된다. 사실 어떤 면에서 현재의 한국교회 현실은 니체가 혐오하던 유럽의 그리스도교와 닮아 있지 않나 생각된다.

또한 심리학이라는 가면을 쓰고 예수님이 들어오는 명상적 불교와 조심스럽지만 인도의 요가(마음 챙김의 방식과 명상과 운동으로서의 요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들과 함께 불교와 힌두교적 사상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한다), 그리고 포스트모던적인 허무주의적 사고가 이제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듯 하다. 이미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해 한국은 다문화와 다종교 상황에 돌입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서를 비롯한 정일권 박사의 책들은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예방 주사와 같다.

그러나 예방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다. 즉 타이밍을 놓치면 예방은 실패한다. 그래서 본서를 비롯한 정일권 박사의 글이 속히 한국 그리스도교를 비롯한 일반 사회에 알려지기를 간곡히 바란다.

강도현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누구나 알 만한 복음서 사건들로 2천년 전 예수님을 만나다

예수와 함께한 복음서 여행



예수와 함께한 복음서 여행 데이비드 그레고리 포이에마 | 232쪽

에 비유한 사람은 천재지만, 두 번째로 같은 말을 한 사람은 바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고,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자주 활용하는 것이 잘못일 수 없겠지만, 이미 이 저자의 방식과 게임 룰을 알아버린 독자들에게는 식상함이 될 수 있습니다. 창작물에 있어 '식상함'은 죄입니다. 나름 전작과 달리 예수님이 아니라 주인공을 시간 이동시켰지만 전작의 흔적을 질게 풍긴다는 건, 이 저자의 책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는 새로움이지만 읽은 독자에게 '또야?'라는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미있게 읽은 이유는 '이야기의 힘'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설교를 많이 들어본 독자라면 주인공의 고민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내릴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지만, 이야기라는 그릇에 담겨져 놓으니 '갑자기' 궁금해지고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야기란 그래서 좋은 무기입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의중을, 상상력을 허용케 하는 소설이란 장르를 통해 알려줌으로써 호기심을 갖게 하고 독자의 공감을 얻게 합니다.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소설이기에 면죄부를 얻게 된 겁니다.

이 책은 더욱이 저자가 전작을 통해 독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 가야 책을 읽게 되는지 알았다는 듯, 누구나 알 만한 복음서 사건들만을 가지고 쉬운 글로 설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성경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책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자면, 분량도 적당하게 무겁지 않은 데다 문단과 문장의 간격이 적당하여 가독력 높은데다 판형도 들고 다니기 편합니다.

100% 만족하는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독교 문학 시장에서 이 정도 품질의 도서만이라도 꾸준히 나올 수 있다면 기독교 출판 시장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서평가 이성구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독교동족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오더링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연세 사랑의 나눔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종교개혁500주년 추수감사절 기념

연세 사랑의 나눔 콘서트

"어려운 이웃과 타민족에게 사랑의 정라면을 보냅니다. 작은 사랑의 나눔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 특별출연 |

TAO 오케스트라(단장:박현주) 남가주말수어선양단(단장:이종희) 호모니아 챔버 오케스트라(지휘: 박세연)

미주여성코랄(지휘:오성애) 그외 랜디깅 밴드와 타민족이 함께 하는 찬양팀이 출연합니다

오렌지선교함정단(OMC)(지휘: 정진영)

사랑의 컵라면 보내기에 동참하실 분은 후원금을 연목회(Pay to: FCEC, 18325 Horst Ave, Artesia, CA 90701 전화 714)262-1428)로 보내주시면 사랑의 컵라면을 사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12일 (주일) 오후 4시 30분

장소: 생수의 강 선교교회 (19200 Pioneer Blvd, Cerritos, CA 90703 Tel.562.653.0168)

주최: 남가주 연세목회자회(회장:김기동) 주관:연세대학교 남가주총동문회(회장:방하섭)

제17대 연목회임원: 회장: 김기동, 수석부회장: 조종근, 부회장: 박종대, 남상국, 차광일, 김기대, 조후연, 전지용, 총무: 김중수, 서기: 정효남, 회계: 권영대

김기동 회장 방하섭 회장

openstewardship.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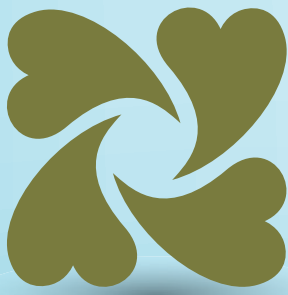
Since
2011

2011년부터 지금까지

For
Our
Community더 나은
커뮤니티를 위해Sharing
of
Love

나눔을 실천하는

OSF

Open
Stewardship
Foundation

오픈청지기 재단 지원단체 모집

Open Stewardship Foundation

2017년 오픈청지기재단 수혜 단체 모집 접수를 시작합니다.

오픈청지기프로그램(Open Stewardship Program)은 한인사회와 주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들의 현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고 확장하기 위해 [Open Stewardship Foundation]에서 실행하는 지원금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미주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해 주실 비영리 봉사단체들은 지금 바로 오픈청지기재단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 및 지원금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세요.

I 접수기간 : 2017년 11월 30일까지

openstewardship.com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온 세상에 전하는-

Open
Stewardship
Foundation

213.593.4885

1000 Wilshire Blvd., Suite 500, Los Angeles, CA 90017

지원금 수혜자는 웹사이트, 신문광고 및 안내 우편을 통해 발표 됩니다.